

人情어린 컴퓨터

소프트웨어(SW)의 발전없이 컴퓨터산업의 발달은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요원을 육성하려고 여러기관과 학교에서 서두르고 있는데 아직은 태부족이라고 한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 초에는 그때의 전세계 인구가 모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해도 要員이 부족할 만큼 개발해야될 소프트웨어량이 방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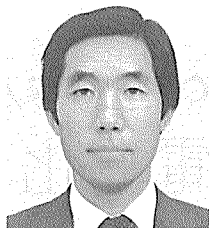
그러면 우리는 무엇때문에 그 많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만 하고 또 그 필요성은 무엇인가 누구는 우리가 사는 의미를 『보다 잘 살수 있는 내일을 자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정말 우리는 『보다 자동화되고 조직화되어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기술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있다.

즉 어떤 소프트웨어개발담당자는 너무 자동화되고 조직화되어 있는 사회에 살게될 자기자손이 어떤 事故로 컴퓨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고력이나 추리력이 모자라 전혀 무능하게 되거나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늘 먹던 복숭아통조림과 복숭아나무가 무슨

이의일
한국후지쯔 이사



관계가 있는지 복숭아나무 밑을 지나면서도 모르게되거나
않을지, 또는 완전히 기계의 노예가되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지않을지 근심이 앞선다는 것이다. 그런
사회는 몇사람의 天才외에 거의 모든 사람이 바보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정신적 불안에 시달려 치
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보다 먼저 컴퓨터앞에
앉아 자기 진단을 위한 입력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의 모든 기관, 모든 기업체에서 컴퓨터가 큰 힘을
발휘하여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나옴직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인간과 비슷하게 作動하는 인간같은 기계도 개발되리
라 한다. 그런 기계에 정말 인간적인 哲學을 심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넣어주어 따뜻한 人情을 기대해 보는
것은 지나친 공상일까?